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태양광 업체 CEO “인플레이감축법(IRA) 폐지되면 미국 경제 고통”
- WSJ: IMF “건조한 미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1995년처럼 미 국채 급락... 투자자들 소프트랜딩 예상
- Bloomberg: IMF, “미 대선,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불안 초래”
- Bloomberg: BoA, AI와 러닝 머신 특허 건수 2년간 94% 늘려

#### [미국 대선]

- WSJ: 민주당, 교착 상태에 있는 대선 경주에 우려 커져
- Bloomberg: 트럼프, 자동차 감세 방안에 아시아 및 유럽산 제외

####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신청 건수, 8월 이후 최저 수준

#### [에너지]

- CNBC: “빅 테크 기업이 원자력 부흥을 이끈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월마트, 30분처방전 배송... CVS 위협
- WSJ: 보잉, 파업 종료 앞두고 60억 달러 손실 기록
- Bloomberg: 코카콜라, 가격 인상으로 매출 증가
- Bloomberg: 현대, 새로운 친환경 수소 생산 테스트 실시
- Bloomberg: 아메리카 항공, 장애인 승객 처우 문제로 벌금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Economy Will Suffer If IRA Repealed, Solar Maker CEO Says**

#### **태양광 업체 CEO “인플레이감축법(IRA) 폐지되면 미국 경제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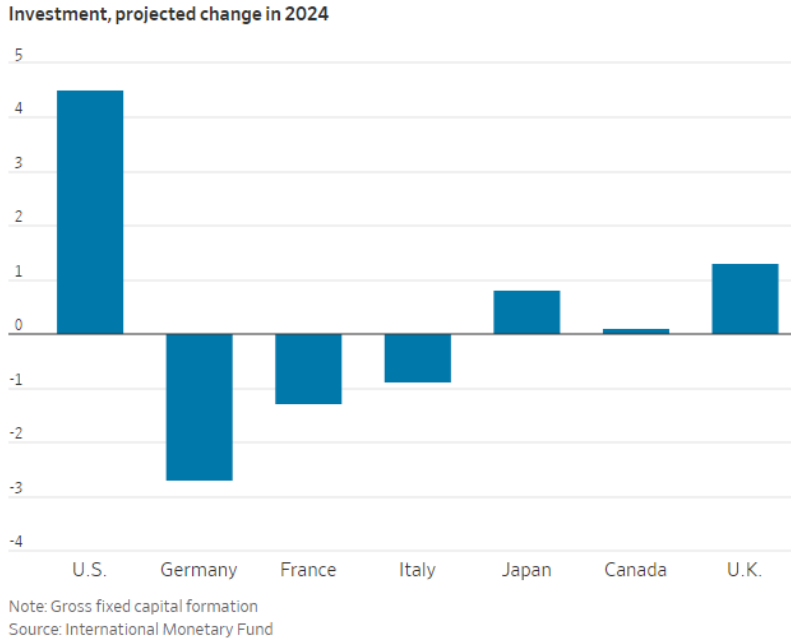
- 태양광 제조 업체인 Enphase Energy의 CEO는 바이든이 서명해 발효 중인 인플레이감축법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이 폐지되면 미국 경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 조치가 일자리를 창조하고 제조업의 회복을 가져오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 조치들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세금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수천억 달러를 제공하는 인플레이감축법(IRA)를 주로 의미한다.
- 물론 이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인플레이션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의 시행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U.S. Economy Again Leads the World, IMF Says**  
**IMF “견조한 미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 IMF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2.5%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이 같은 견조한 성장 예상은 인플레이 조정 수치가 적용된 실질 임금이 상승해 소비지출과 비거주 상업용 투자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년 동안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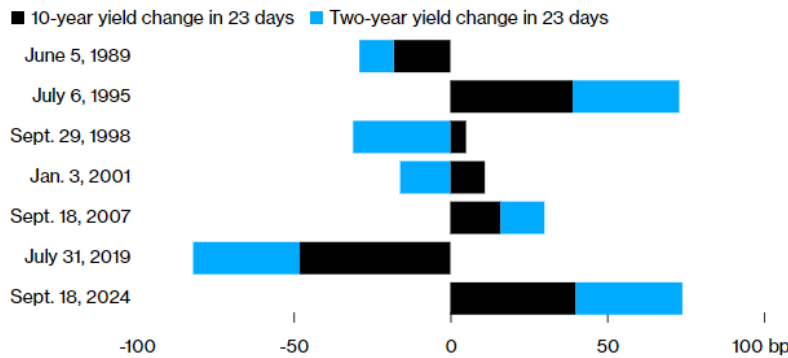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Plunge Like It’s 1995 as Traders See Soft Landing**  
**1995년처럼 미 국채 급락... 투자자들 소프트랜딩 예상**

- 연준이 지난 9월 18일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34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
- 이 같은 금리 상승률은 알랜 그린스펀 의장이 경기 침체 없이 경제를 진정시켰던 지난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989년 당시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만에 2년물 국채 금리가 1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었다.
- 도이치뱅크의 금리 전략가인 Steven Zeng은 국채 금리 상승은 침체 리스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강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Latest US Bond Selloff Echoes the One After 1995 Fed Cut**

Two-year yields rose after first rate reduction in 1995 and 2024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Election Creates ‘High Uncertainty’ for Fragile Markets, IMF Says**  
**IMF, “미 대선,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불안 초래”**

- IMF는 미 대선 후보자 간의 무역정책의 날카로운 차이점으로 인해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높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뜰이나 불안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양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금융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깊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또한 후보자 간의 차이로 인해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의 매도세와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의 관세 및 산업정책 차이와 연방 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그리고 IMF의 지정학적 여파에 따른 시장 리스크 우려는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IMF는 어제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약간 하향 조정했으며, 하향 리스크가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글로벌 경제는 이른바 소프트 랜딩 상황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Bank of America Expands AI and Machine Learning Patents 94% Over Two Years****BoA, AI와 러닝 머신 특허 건수 2년간 94% 늘려**

- 금융기관들이 기술을 수용하는 경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년 반 동안 AI와 러닝머신 관련 특허 건수를 거의 두배나 늘렸다.
- BoA는 관련 특허와 출원 중인 특허 신청 건수가 지난 2022년 초 이래 94%가 증가했다고 오늘 수요일 밝혔다. 이 중 50% 이상이 승인되었다.
- 한편 챗GPT의 출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AI 관련 직책의 채용을 늘리고, 생산성 AI의 더 많은 사용을 테스트 중이다. 이들은 AI로 서류 요약, 이메일 쓰기,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은 현재 이를 테스트 중인데, 인력 생산성이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WSJ: Democrats Are Growing More Anxious Over Deadlocked Race****민주당, 교착 상태에 있는 대선 경주에 우려 커져**

-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연합을 이루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그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의 인터뷰 결과 그녀의 팀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6년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에 패배한 민주당의 상처가 되살아난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일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남성층 지지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흑인 남성과 백인 근로자 남성층이 그렇다.
- 그리고 최근 들어 미시간주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악화되는 중동 문제를 처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 이번 캠페인 상황은 앞을 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 WSJ 기사

### Bloomberg: Trump Excludes Asian, European Cars From Vehicle Tax-Break Plan

#### 트럼프, 자동차 감세 방안에 아시아 및 유럽산 제외

-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중에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기간 중에 미국산 자동차에만 소비자들에게 구매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 그는 “나는 다른 나라의 혜택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혜택을 입길 원한다. 대출 이자 비용 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 이는 미국산에만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는 지난 수 주 동안 미 국내 제조업 일자리와 관련해 유권자들을 달래는 상황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자동차 감세 방안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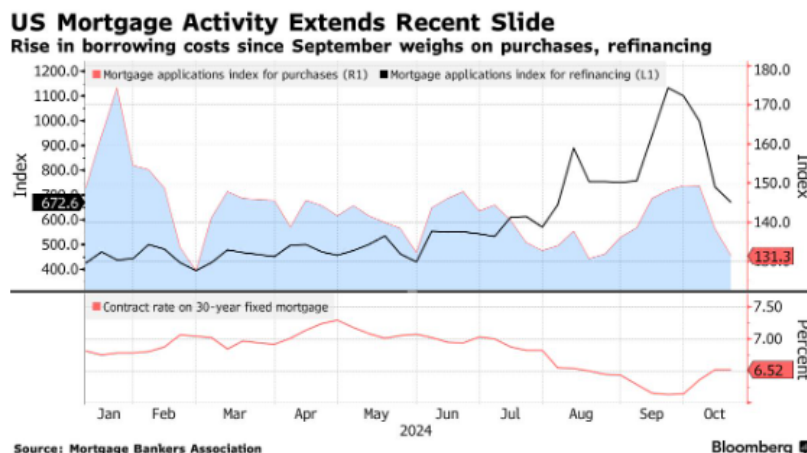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주택]

### Bloomberg: US Mortgage Activity Gauges Drop to Lowest Levels Since August

#### 미 모기지 신청 건수, 8월 이후 최저 수준

- 지난주 미국 주택 구입 및 재융자 신청 건수가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기지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모기지 은행 협회의 주택 구매 지수는 10월 18일로 끝난 주에 5.1% 감소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재융자 지수는 8.4% 하락했다.
-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6.52%를 기록했다.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 주택 용자 비용 상승과 여전히 높은 주택 매매 가격은 주택 수요 부진을 1년 이상 늘릴 위험이 있다.



## Bloomberg 기사

## [에너지]

**CNBC: Big Tech is driving a nuclear power revival, energy guru Dan Yergin says****“빅 테크 기업이 원자력 부흥을 이끈다”**

- 미국 원자력 발전이 부활한다. 빅 테크 기업이 부활의 원동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 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이들 3개 회사들은 최근 2개월간 원자력 가동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실베이니아주 Three Mile Island에 있는 원자로 가동을 위해 Constellation Energy와 20년 계약을 체결했다.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인공 지능 및 암호화폐 부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2022년 약 460테라와트시(TWh)였다.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TWh) 이상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에너지 전문가 Dan Yergin은 “놀라운 변화다. 미국은 한 세대 동안 전기 수요가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수요를 원자력이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Walmart's new threat to CVS: 30-minute prescription deliveries****월마트, 30분처방전 배송... CVS 위협**

- CVS를 비롯한 미국 드러그스토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인 월마트가 미 드러그스토어 산업을 위협할 ‘30분 전 처방전’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출시했다. ‘30분 전 처방전’은 식료품을 배달할 때 처방전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월마트는 처방전 배송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6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까지 49개 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약 4천6백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역시 2020년 자체 약국을 개설해 프라임 회원에게 이들 무료 배송으로 처방전을 배송하고 있다.
- 미국 드러그스토어 체인들은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경쟁업체에 밀려나고 있다. CVS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244개 매장을 폐쇄했고, 202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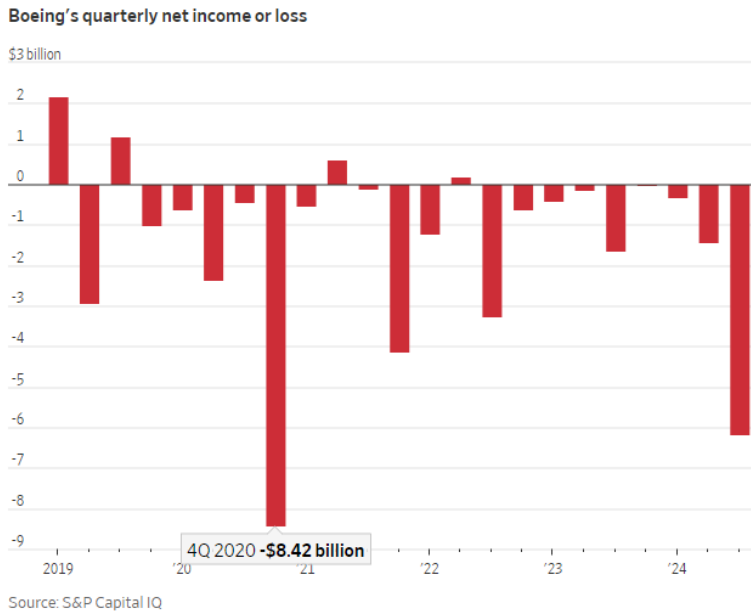
는 추가로 90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월그린은 이달 초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WSJ: Boeing Posts \$6 Billion Loss Ahead of Strike Vote**

**보잉, 파업 종료 앞두고 60억 달러 손실 기록**

- 보잉이 분기별 61억7천만 달러 손실을 보고했다. 팬데믹으로 항공 여행이 중단된 2020년 이후 최대 손실이다. 보잉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건의 추락 사고, 형사 유죄 판결, 공중 폭발, 생산 지연, 파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 보잉 파업은 수요일 노조 측 투표를 앞두고 있다. 최신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종료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다. 합의안은 4년간 35% 임금 인상, 7천 달러 보너스, 퇴직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보잉 CEO Kelly Ortberg는 “회사의 망가진 문화를 복구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비행기 모델에 대한 실행력을 개선해야 한다. 문제가 굶는 것을 방지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CEO, 전 인사 책임자, 전 CFO 등 최고 경영진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보잉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WSJ 기사

**Bloomberg: Coca-Cola Raises Outlook, Continued Price Hikes Lift Sales**

**코카콜라, 가격 인상으로 매출 증가**

-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계속 코카콜라 제품을 소비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는 주요 판매 지표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이번 분기 가격을 10% 올렸었다.
- 코카콜라의 3분기 유기적 매출(organic revenue, 합병 등 외부 요인 영향 없이 사업 운영에 의한 순수한 매출 증가)이 9% 증가했다. 분석가들은 6.3% 성장을 예상했었다. 코카콜라는 현재 연간 유기적 성장률을 10%로 예상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Hyundai Testing Novel Hydrogen Production as Part of Green Push**

#### **현대, 새로운 친환경 수소 생산 테스트 실시**

-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수소를 이용해 내부 물류 작업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10년간 약 5조7천억 원(41억 달러)을 투자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북미 상용차 및 수소 사업 개발 책임자 Jim Park는 수소 경제의 전체 스펙트럼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수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Jim Park는 수소의 높은 저장 밀도 덕분에 무게나 주행 거리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수소 연료 충전 인프라와 대규모 시장 응용의 부재로 단기적으로 널리 채택되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인프라 설치를 위해 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American Air Fined Over Treatment of Travelers With Disabilities**

#### **아메리카 항공, 장애인 승객 처우 문제로 벌금**

- 아메리카 항공이 장애인 승객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5천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메리카 항공은 수천 대의 승객 휠체어를 손상시키거나 반납을 지연했다.
- 아메리카 항공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의 일환으로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휠체어 문제로 영향을 받은 승객에 대한 보상과 문제 개선을 위해 같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2천5백만 달러의 추가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올해 초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장애인 승객 응대를 위해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행 중 휠체어가 파손될 경우 항공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규칙을 제시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 JP모건 "美 주가 연 11% 오른다" vs 골드만 "3% 상승 그칠 것" 월가 대형은행들 장기 주가 전망 엇갈려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 모건은 향후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1957년 이후 기록했던 연 11%의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골드만삭스가 내놔던 연평균 3% 상승 전망과는 많이 다른 예측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 자산관리팀은 뉴욕 주식 시장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195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23년까지 기록했던 연평균 상승률 11%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